



80kg 한 가마에 200만원...적토미를 아십니까

장흥군 용산면 쇠뚝구리마을의 가을 들녘은 석양빛 보다 붉다. 유기농쌀 '적토미'의 벼이삭은 '콜타닌' 색소를 지녀 껍박과 비슷한 색을 띠기 때문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올해 1만평의 논에서 적토미 5천500여kg을 수확할 예정이다. 적토미는 보통쌀의 10배가 훨씬 넘는 80kg 가마당 200여만원에 팔린다. /고성석기자 ksgo@kwangju.co.kr

## 삼성전자, 신개념 CTF기술 상용화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첫 개발

### '황의 법칙' 입증

〈메모리 집적도 매년 2배 증가〉

삼성전자가 신개념의 'CTF (Charge Trap Flash)' 낸드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또 세계 최대 용량의 신물질 메모리인 512메가 P램 (Phase Change RAM)과 세계 최초의 신개념 하이브리드 드라 이브용 SoC(System on Chip)도 개발했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황창규 사장은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산업을 현재의 기가 시대를 넘어 2010년 이후 테라(기가의 1천배) 시대 진입의 토대 마련 ▲낸드플래시 시장 향후 10년간 250조원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작년에 50나노 16기가 낸드플래시 개발에 이어 올해 CTF 기술로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를 개발함으로써 "1.5년만에 용량(집적도)이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을 깨고 황 사장이 발표한 '메모리 신성장

### 512메가 P램 반도체도 세계 첫 선

기자간담회를 열어 CTF 기술 개발과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TF 기술은 1971년 비휘발성 메모리가 처음 개발된 이래 35년간 상용화에 적용돼온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기술로, 삼성전자가 2001년 개발에 착수했다. 황창규 사장은 "이번 상용화 성공으로 삼성은 독자 기술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사와 기술 격차도 더욱 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통해 ▲반도체 공정수 20% 이상 축소를 통한 제조원가의 획기적 절감 ▲20나노 256기가 확대 적용 가능

론'을 7년 연속 입증하는가 하면 6년 연속으로 최첨단 나노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낸드플래시를 PC까지 적용해 하드디스크 없는 '디지털 PC'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를 향후 모바일 PC는 물론 하드디스크가 적용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으로 더욱 확대 예정이다. 황창규 사장은 "작년에 '플래시 러시(Flash Rush)'의 해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여는 '플래시토피아(Flash-topia)' 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제회의 불모지 광주·전남

### 작년 한건도 유치 못해...서울 103·부산 23건 관광인프라 구축·국제회의도시 지정 등 시급

국제회의 도시와 서남해안 관광 거점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이 단 한 건의 국제회의도 유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컨벤션 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국제회의 불모지로 남아있다.

세계적 컨벤션 전문 통계기관인 UIA(U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2005년도 국제회의 유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85건을 유치해 국가별 순위에서 14

위로 전년도 17위에 비해 3계단 상승했으며, 아시아 순위도 2위로 전년도에 비해 1계단 올랐다. 도시별 아시아순위에서는 서울이 2위, 부산이 10위, 제주가 11위를 차지했다. 국내 도시 순위에서는 서울(103건), 부산(23건), 제주(22건), 광주(10건), 대구(7건), 경기도(4건), 인천(3건) 등의 순이었다.

UIA의 국제회의의 기준은 참가자 300명 이상의 규모에 참가자 중 4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며, 참가국 수는 5개국 이상에 회의 기간도 3일 이상이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UIA 기준에 해당되는 국제회의를 단 한건도 유치하지 못해 '국제회의 불모지'로 남아있다.

국제회의를 유치한 지자체는 상당수가 국제회의도시이며, 국제회의도시가 아닐지라도 국제회의 전담조직인 '컨벤션뷰로'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관광공사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천도 국제회의 유치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아직 컨벤션뷰로와 같은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꾸리지 못했으며, 국제회의의 필수요건인 특급호텔도 영암 현대호텔 1곳만이 최근 문을 연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도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는 지난 해 9월6일 김대중컨벤

선센터 개관으로 컨벤션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국제산업전이나 노벨 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와 같은 다양한 국제 행사를 치렀으나 역시 부가 가치가 높은 국제 회의는 한건도 유치하지 못했다.

국제회의가 대부분 제주나 부산과 같은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서 유치되는 경향에 비춰볼 때 전남도 관광인프라 보강 및 국제회의 전담조직과 같은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벤션 전문가와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광주와 전남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인 컨벤션 뷰로 설치와 특급호텔 건립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형준 화순군수 전격 사의

### 보궐선거 10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전형준(50) 화순군수가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며 공석이 되는 화순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것으로 보

인다. <관련기사 4면> 화순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전 군수는 11일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오는 18일자로 사임코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 변호인을 통해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통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90조)은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사임일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군수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관사 김재영)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모든 책임을 지고 화순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전 군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는 18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보궐선거는 다음달 25일 실시된다.

전 군수의 사임으로 광주·전남지역 10·25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전남·진도 국회의원구와 신안군수를 포함 3곳으로 늘어났다.

전 군수의 3차 심리는 1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사 배심원단 장흥에 첫 구성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정준영)이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민사재판(배심조정)을 시범 실시한다. 배심조정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제도다. 장흥지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돼 분쟁해결

### 지역민 분쟁판결 앞서 12인 배심원이 '조정'

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지원은 오는 29일까지 지원 서무과(061-863-7351)나 장흥군청 민원실(061-860-0321)에서 배심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은 만 25세 이상 70세 이하 장흥군민이면 학력·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신청한 주민들은 배심원 후보가 되며 소송 당사자와 무관한 12명이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 종료후 평의(회의)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판결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9월 1일~30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5가역  
광주일보사 ▶ 문의: (062)226-0541

조수미 인터뷰 ▶ 15면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s.ac.kr

몸에 좋은 17차! 마시는 것 역시도 건강해드세요.

17차

17차

17차